

공무원·교사·기업체 선호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교수에게 진로지도 원한다”

신입생 4명중 1명이 장래희망으로 공무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신입생 1964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지난 6월 발표한 '2012년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27.8%의 학생이 장래에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사(13.1%), 일반 기업체 취직(8.8%), 기술전문분야(8.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생명자원과학대학 신입생들은 연구직(29.7%)을 가장 선호했으며, 공과대학은 기술전문분야(27.7%), 사범대학은 교사(61.5%), 간호대학은 사회복지관련분야(27.0%), 예술디자인대학은 예술직(38.2%) 등이 1위를 차지해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희망해 전공일치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

성의 31.3%, 여성의 24.5%가 공무원을 꼽아 남녀 모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농축어업분야는 전체의 0.2%만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신입생들은 대학진학의 목적으로 유망한 직업을 얻기 위해(46.2%),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34.9%) 등을 꼽았다.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해 '남녀 모 양한 직업을 얻기 위해'가 가장 높았으나 남학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해 진학했다고 응답한 경향은 여성이 더 높았다. 또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42.8%), 전공공부(36.5%)를 차지했다.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진로에 대한 방향'(38.7%)이 가장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취업·진로 문제(42.0%), 학습방법·학업문제(36.7%) 등을 꼽았다.

김명지 기자

‘교육대학 식당’ 불만 커... 가격 낮추고 식단 다양화해야

교대생 388명 설문 결과

68% ‘학생식당 불만있다’

대학 “대안없어 현행 유지”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대학 학생회는 이에 대해 대학당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대학 학생회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교육대학 소속 1~3학년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식당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만족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이유는 식단의 다양성 부족이 37%를 기록했다.

또 학생식당(점심식사) 가격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은 전체의 93%, 학생생활관 식사(아침, 저녁)는 전체의 97%가 가격을 낮춰야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식당 위생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식기구의 비위생, 종사원의 위생관념 부족, 급식장소의 위생상태

미흡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식당 음식이 맛이 없고 가격도 비싸다”며 “학생들은 ‘올며 겨자먹기’ 식으로 밥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은 생활협동조합 직영형태로 운영 중인 아라캠퍼스 학생회관 식당과 달리 입찰을 통한 외주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아라캠퍼스와 달리 사라캠퍼스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소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복지과 담당자는 ‘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학생식당을 운영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라캠퍼스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식당이 임대형식의 사업이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학 학생식당도 아라캠퍼스 학생식당과 같이 직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있다. 초등교육과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아라캠퍼스 학생식당과 비교해보면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이 질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며 “아라캠퍼스처럼 직접 학교에서 운영한다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부는 학생식당 직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를 직영화한다면 학교 재정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교내에서 미국 대학 학점 취득한다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25일 첫 개설



명, 미국 소노마주립대 4명, 텔라웨어주립대 6명으로 총 28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재무관리, 의회와 선거, 뉴미디어 실습이다. 이번 강좌는 또한 계절학기 운영됨에 따라 수강자에 대해 학점 취득이 인정된다.

강좌는 텔라웨어주립대 광역석 경영대학장, 소노마주립대 데리비드 맥쿠안 정치과학대학 교수, 리처드스탁튼칼리지 이경 교육대학 교수를 초청해 강의한다.

이번 서머스쿨은 △영어강좌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 충족 △간접 교류수학 체험기회 제공 △2학기 이후 재학생들의 학비면제 교류학생 파견 기반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는 지난달 25일부터 외국대학 개설 교과목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터내셔널 서머스쿨(국제어문학교)’을 개설했다. 서머스쿨은 오는 13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서머스쿨에는 제주대 18



“방학에는 밖에서 땀 흘리며 배워요” 미술학부 30여명의 학생들이 지난달 22일 무릉1리사무소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미술학부 제공>

본부·단과대 사무관급 이상 13명 1일자로 인사 단행



제주대가 지난 1일자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4명과 사무관 9명에 대해 이뤄진 이번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사과장-정병일 서기관 △총무과장-조용준 서기관 △재정과장-홍인기 서기관 △시설과장-김재학 기술서기관 △입학관리과장-김석건 행정사무관 △기획평가과장-한승희 행정사무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장 직무대리-윤광진 행정사무관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정실장-정종환 행정사무관 △해양과학대학-신중우 행정사무관 △공과대학-이창기 행정사무관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양우호 행정사무관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장-김재욱 사무관 △도서관 수서정리과장-정민진 사무관.

김명지 기자

단과대학장 공모제 확정

교수 선호도 50%·심사위 점수 50% 반영해 2인 추천

앞으로 단과대학장을 뽑는 데 교수 선호도 50%를 반영하는 공모제가 전면 도입된다.

대학 본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원)장 공모 임용 추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학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단과대학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한다. 사실상 자율 공모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중견 학장 선출은 직선제를 고수해 왔으나, 지난해 2월부터는 직선제에서 총장 지명방식으로 바꿨다.

지침은 후보자는 공모 공고일 현재 해당 단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정교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 수사중이거나 징계결정이 요구중인 자,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모는 임기 종료 60일전에 학내 전자문서계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모 접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호도 조사 전일까지 단과대학 발전을 위한 직무수행 계획 등을 전화와 컴퓨터 통신만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단과대학(원)장 공모 임용추천 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임용 추천위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해당 단과대학(원)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후보자는 단과대학장 후보자별 2단계 심사점수 50%와 전임교원에 의한 선호도 조사 환산점수 50%를 합산해 상위 2인을 선정 후 총장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모기간내에 단과대학장 후보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직접 해당 단과대학장을 지명하여 임용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단과대학장 임기에 맞춰 수시 공모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모제로 운영되는 만큼 단과대학 운영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사 령

김윤희(국어국문학과1)
최희은(국어국문학과1)

7월 1일자로 수습기자에 임명함

제주대신문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후기 학위수여식은 왜 안 하나

우리대학교의 첫 학위수여식(졸업식)은 1954년 3월 25일 판잣집 교사에서 거행되었고, 1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개교 60주년을 맞는 올해의 학위수여식은 지난 2월 20일 아라뮤즈홀과 미래창조관(사라캅퍼스)에서 열려 2022명(박사 40명, 석사 232명, 학사 1750명)이 학위를 받았다. 모두 56회의 학위수여식을 거행해 오는 동안 우리대학교의 졸업생은 6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학위수여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를 제기코자 한다. 도대체 왜 학위수여식은 전기(2월)에만 하고 후기(8월)에는 거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예전에는 제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뒤늦게 후기졸업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코스모스 졸업'이라 하면서 불명예스럽게 여기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에 박힌 학사운영이 이뤄지던 구시대의 풍속도일 따름이다.

이제 성적이 뛰어난 조기졸업자가 후기졸업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이른바 '역학기 복학'으로 후기졸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졸업유예를 통해 후기졸업을 자청하기도 한다. 특히 박사·석사 학위 취득자에게는 예전부터 전기와 후기의 구별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이었다. 입학·수업·졸업 등 모든 학사일정이 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대학원에서는 학년도 기준의 전·후기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의 경우 학위취득자 수에서도 전기와 후기에 차이

가 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현재 우리대학교의 후기 학위수여식은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별로 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거행되는 경우는 5학기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기준인 교육대학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대학(원)에서는 학위를 취득해도 6개월 기다려야 학위기를 준다(서류상으로만 박사요, 석사다). 6개월 먼저 졸업했는데도 후배들 틈에 끼어서 공색하게 학위를 받는 형국인 셈이다.

이차피 요즘 학위수여식은 학부 졸업생이 아닌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우리대학교도 과거에는 넓은 야외음악당이나 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하던 행사 장소를 근래에 아라뮤즈홀로 변경하지 않았는가.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는 것을 두고 관련 부서에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미 총장이 교육대학원의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왔으므로, 그것을 다른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함께 진행하면 훌륭한 제주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이 되는 것이다.

관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둔다면 그 조직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 오히려 정체되어 썩을 뿐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려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발전한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난 5월의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굳센 다짐을 하지 않았는가.

좋은 만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만남이다. 이 만남의 대상은 크게 물질과 사람, 그리고 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상은 말과 행위이다. 이 온갖 만남의 첫 번째 산물은 특정의 생각이다.

이 생각을 좋은 것으로 여겨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여건이 주어지면 의도에 따른 행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 행위가 반복되면 우리의 인격이 결정된다. 자주 좋은 행위를 하는 좋은 사람이나 자주 나쁜 행위를 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다.

살다 보면 의도한 만남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만남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모든 만남들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어떤 생각이 좋고 나쁘는지 경계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강조되면서 당장의 성과에 매달리느라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2개월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방학이라고 해서 한가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립심과 사회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봉사활동이나 독서 등, 미뤄왔던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할 테니까. 다만 같은 강의를 듣던 동료들과의 경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릴 수는 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학점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학업에 매진하던 때와는 달리 호흡을 가다듬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의 행복한 삶에 진짜로 좋은 것을 위한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요즘엔 다양한 자기계발서가 나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책들 거의 모두가 권하는 바는 대략 이렇다. 온갖 종류의 만남들을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각종 만남의 산물인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변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말로, 없다면 글말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 즉 소통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 소통행위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생각은 받아들여 실천하고 나쁜 생각은 지나가도록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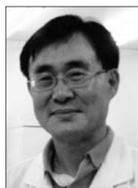
박세필 교수, '우장춘 프로젝트' 연구책임자로 선정

생명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전 세계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뇌질 환인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바로 '우장춘 프로젝트'에서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돼지 개발과 이를 활용한 후성유전체 연구'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된 박세필(생명공학부·사진) 교수팀.

이번 연구는 완치가 불가능한 알츠하이머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오는 2017년까지 연구비 60억(정부출연금 5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응자금



10억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사업과 관련한 역량과 실적을 보고

선정했다. 의료·생명 공학 분야의 장비나 인프라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제주도에 있는 교수가 선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박세필 교수는는 역분화줄기세포 확립, 제주 흑우 복제 등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경쟁력 있는 생명공학계 박사들을 제치고 연구

책임자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에는 박세필 교수팀을 필두로 한국축산과학원, 서울대 의과대학, 건국대 및 미국 일리노이대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알츠하이머 연구와 관련 박세필 교수 연구팀은 돼지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돼지와 같은 대동물류의 복제가 어려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하지만 쥐는 사람의 DNA와 유사성이 떨어져 쥐에게 치료가 됐던 방법들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줄이고 박세필 교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세포복제 기술을 응용해 돼지로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맞는 알츠하이머 치료법을 찾는다.

박세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질환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생명의료산업에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많은 연구의 연속선상기에 지금까지 성공했던 연구를 접목시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장춘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고 우장춘 박사의 미래 원천 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총 5개의 주제로 오는 2019년까지 399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 '한국역대문집총서' 목록 색인화 작업 참여

홍콩시태대·미국 UC버클리대와 공동으로

제주대는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한 '한국역대문집총서' 3000권을 목록 색인하는 작업을 홍콩시태대와 미국 UC 버클리대와 함께 실시한다.

이 사업은 대학 박물관이 주관, 인문대학 사학과와 인문과학연구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감수에는 김동현(日新又日新)이라는 자제가 견지되어야 발전한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난 5월의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굳센 다짐을 하지 않았는가.

치안 철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대는 분류된 색인 감수와 한글화 작업을 담당키로 했다.

정창원 교수는 "현지 전문가들이 인문대학 사학과와 인문과학연구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감수에는 김동현(日新又日新)이라는 자제가 견지되어야 발전한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난 5월의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굳센 다짐을 하지 않았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는 이번 작업이 △한국학의 세계화 선도 △한국학의 데이터베이스화 견인 △동아시아학 확산 기초 제공 △학술교류협력의 선도와 및 강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홍콩시태대는 중국어 색인분야의 인력과 분류를 담당하며, 미국 UC 버클리대는 영문화와 영문 감수를 맡기로 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지아 기자

'남성용 스킨핑백' 화장품 공모전 대상 수상

김성찬·한정환씨 조아름씨 팀은 우수상

제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이상백 교수)이 (주)이니스프리(대표이사 안세홍)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원로 컨셉 화장품 공모전'에서 김성찬·한정환(화학과 석사 과정)씨가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의 몸과 뜻을 이용한 남성용 스킨핑백'을 제안했다.

조아름·김경인·김은경(화학과 2)씨는 '제주산딸기나무와 개민들레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팀에게는 (주)이니스프리의

중국 현지 사무실과 매장 방문을 비롯, 뷰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우수상팀에는 50만원 상당의 이니스프리 제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 화장품 공모전에는 총 15개 팀이 응모해 이 중 5개팀이 선발됐으며, 최종발표회를 거쳐 수상자가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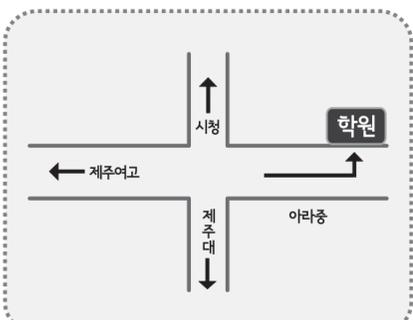
앞서 사업단은 이니스프리 교육트랙을 구성, 정규강좌 중에 실무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등 이니스프리와 연계해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대와 이니스프리는 지난 5월 22일 '글로벌 향장산업 인재육성 및 연구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 ↔ 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13차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

1. 모집인원 및 대상 : 90명(초등 3~6년)
2. 캠프기간 : 2012. 7.30(월)~8.10(금)(11박 12일)
3. 장 소 : 외국어교육원 및 학생생활관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camp.jejunu.ac.kr> (회원가입 → 참가신청)
5. 참 가 비 : 980,000원(농협 954-01-024722)
※ 할인적용(중복 불가)
▶ 제주대학교 교직원 자녀(제대병원 포함) 10% 할인
▶ 형제자매 참가자 10% 할인
▶ 이전 FLI 캠프 참가자 10% 할인

외국어교육원 초등영어 Program 안내

- 개설강좌 : Starter~Level 5(6단계)
- 강좌시간 : pm 3:00~6:00(강좌별 월~금 1시간)
- 모집인원 : 잔여인원 및 대기자 접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j.jejunu.ac.kr>

사람들

김선옥씨, 학술대회서 우수논문상 수상 박희수 동문, 제주도의회 의장 선출

김선옥(체육학부 교육대학원생)씨(주저자)가 지난달 14일부터 3일간 제주 연동 더호텔에서 열린 '2012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이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양명환 교수의 지도 아래 고대휴·이혜선·오영택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스포츠심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전 학문분야 인용지수 전체 1위로 평가받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등재학술지)를 계간으로 발행하는 학회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4선의 박희수 동문(법학과 졸업)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9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박희수(51·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입 박 동문은 2014년 6월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대 총학생회장(1986년) 출신인 박 동문은 제주도의회 5·6·8·9대 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최다선(4선)의원으로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일상 교수, 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 선출

송일상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이 지난달 21일부터 양일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2012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신입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형규(전 삼성전자 사장) 박사가 지난달 8일 공과대학 4호관 강당에서 '정보기술혁명과 삼성전자'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형규 박사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전자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부 감독관, 시험 중 부정행위 보고도 '수수방관'

관련 규정 적용해 징계한 사례 거의 없어...

2인 이상 감독 등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학기 교양과목의 기말시험 시간. 한 학생이 미리 적어온 쪽지를 꺼내 들었다. 시험이 시작되자 그 학생은 준비한 쪽지를 손 뒤에 감춘 뒤 커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감독관에게 두 번이나 적발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과목의 시험 시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 학생은 시험 전 감독관들은 부정행위를 하도록 적발될 경우, 성적무효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감독관은 커닝을 한 학생들에게 그저 훈계에만 그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지나쳐 버렸다.

매학기 시험마다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그 유형에 따라 △당해 과목 성적 무효 △당해학기 전 과목 성적무효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또 부정행위 해당 학생은 소속대학 교수회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학칙과 규정이 있음에도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시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영학과의 한 학생은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나쁘지만, 수수방관하는 감독관의 태도도 문제다"라며 "열심히 공부한 다른 학습들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제지해

야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은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과목인 경우, 시험 때에도 강의실 변경에 따라 △당해 과목 성적 무효 △당해학기 전 과목 성적무효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또 부정행위 해당 학생은 소속대학 교수회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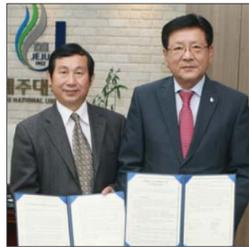
그러나 이런 학칙과 규정이 있음에도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시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영학과의 한 학생은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나쁘지만, 수수방관하는 감독관의 태도도 문제다"라며 "열심히 공부한 다른 학습들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제지해

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며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습관화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근영(학사과) 실무관은 "예전에 비해서 부정행위가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남들도 다하는 것이니까 나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S.F.C(학생신앙운동)에서 벌이는 커닝추방운동 등의 자정적인 노력이 있지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대에서는 모든 시험 장소에 2인 이상의 감독관을 배치해 제도적으로 부정행위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전남대에서는 학생들이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지아 기자

미국·중국 등 외국대학과 교류 활발



리 지안바오(하이난대학) 총장과 허향진 총장

제주대가 미국, 중국 등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는 등 외국대학과 손을 잡고 있다.

제주대가 지난 2일 중국 하이난(海南)대학(총장 리 지안바오,李建保)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또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 델라웨어주립대(총장 Harry L. Williams)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제주대와 하이난대학은 협정서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매년 2

명 이내 교류수학생 선발 과정 △선발 교류수학생은 1학기 혹은 1년 유학 및 등록금 면제 △전공과목 양 대학 규정에 따른 이수 △교류수학생 건강보험 가입 등을 약속했다.

양 대학은 지난 2004년 12월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하이난대학은 하이난성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으로 하이난성 성도인 하이커우시에 위치해 있다. 21개 단과대학이 있는 하이난대학은 41개 석사과정, 34개 학부과정, 10개 고등직업교육과정이 있다. 학생수는 3만7000여명이다. 이학, 정보, 생명과학 및 농학, 해양, 경제관리, 법학, 인문, 외국어, 예술, 관광, 정치 및 공공관리, 응용기술, 성인교육, 국제문화교류학원 등이다. 또한 사회과학부, 체육부 2개 공공과교수센터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델라웨어주립대와 본관 회의실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정에서 양 대학은 복수학위제 및 미국문화 심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의 학생들은 서로의 대학에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델라웨어주립대는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 도버에 위치하고 있다. 델라웨어주립대의 학생수는 4179명, 6개의 단과대학에 2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델라웨어주립대는 학부와 대학원이 130여 개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인문, 사회계, 공학 외에 패션·호텔관광학 등 특이한 분야도 있다.

현재 UK, 중국, 쿠바 등지의 30개 이상의 대학과 교류하면서 교수·학생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외국대학과의 제주대의 학술교류는 23개국, 14개 대학, 23개 기관으로 늘게 됐다.

첫 해외취업지원사업 시행... 학생들 취업 위해 팔 걷어붙여

제주대가 학생 취업을 위해 처음으로 해외취업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취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실시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가한 졸업생과 4학년 졸업예정자 14명이 호주 취업을 위해 현지로 지난 28일 출국했다.

지금까지 제주대 출신의 해외취업은 개별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었지만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해외취업은 '2012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 9000만원 및 대학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선 지난 25일 학생들은 출국에 앞서 교양강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취업전략본부는 해외취업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연수생을 모집한 후 선발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어 5월21일부터 3주간 자체 어학연수, 오리엔테이션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했다.

해외취업 연수단은 지난 2일부터 6주과정의 현지 어학연수와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현지 취업에 나서게 된다.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은 "취업에 따른 제주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해외취업 원년의 해'로



지난 25일 출국에 앞서 교양강의실에서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 참가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취업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정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취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NC사업단 발족...산학협력 시동

STS 사업단에 선정

5년간 인재양성·기술혁신

제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제주대 LINC사업단)이 지난달 7일 발족했다.

사업단은 진양관(인문대학 1호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이상백(생명화학공학과) 교수를 사업단장에 임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현장 밀착형 선도대학에 선정된 제주대 LINC사업단은 향후 5년간 제주자원 특화 산업과 연계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혁신에 주력할 예정이다.

LINC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형 선도대학에

14개, 현장밀착형 선도대학에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현재 제주대LINC사업단에는 경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을 비롯한 총 35개 학과(전공)에서 269명의 교수와 약 57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LINC위원회를 구성해 월별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같은 날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LINC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임명된 5명을 비롯, 앞으로 임명될 산학협력중점 교수들은 기업현장과 학교간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가늠해 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제주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연구 활동 지원사업인 STS(과학기술과 사회: Science & Technology in society) 사업단에 선정됐다. STS사업단의 지원사업은 제주대를 포함, 총 6개의 대학에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복원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진행된다.

STS사업단장을 맡은 박남제(초등 컴퓨터교육전공)교수는 "연구사업단을 주축으로 남도(제주중심)지역의 과학문화 연구추진과 미래 융복합 창의적 지원사업 발굴 및 대중화를 위해 여러 중점 연구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라산 조릿대 가공음료 수도권 진출한다

제주대 RIS 사업단·(주)제주느낌 공동개발

제주대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헬스넷 제주조릿대차'가 제주도 청정자원을 가공한 음료로는 처음으로 수도권에 본격 진출했다. 헬스넷은 제주조릿대 공동브랜드다.

제주조릿대 RIS 사업단(단장 김세제)이 개발에 참여한 헬스넷이 7월부터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다.

이번 시판 제품은 ㈜제주느낌이 김세제 교수팀과 7년 이상 연구개발한 것으로 품질 테스트 등을 모두 거쳤다.

헬스넷(㈜제주느낌)은 수도권 진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릿대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다양한 약학서적에 당뇨, 비만, 고혈압, 열역정화, 암, 면역력 강화, 임산부 구토 등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고 기록돼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출시되는 '헬스넷 제주조릿대 차'는 제주조릿대 잎 특유의 강인한 세포벽 내 활성성분을 최대한 함유시키기 위해 특허 받은 저온 효소가수분해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제조기술을 사용했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직접 채취함으로써 농약이나 유해물질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 웰빙소재다. 최근 조릿대를 활용한



차, 막걸리, 소시지, 향장품 등 다양한 한라산 조릿대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사업단은 "조릿대 추출물에 대한 동물검증실험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체지방조절과 혈행개선을 위



지난달 2일 해군 제주방위사령부 93대에서 여대생 극기훈련 해병대 병영체험 캠프가 열린 가운데 여대생들이 교관으로부터 총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제공>

제32회 백록문학상 박여주·안재현씨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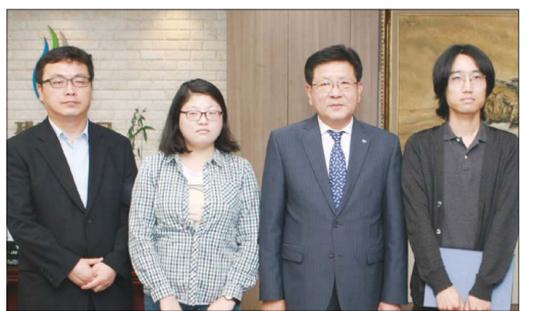
안재현(수의학과 2)씨와 박여주(국어국문학과 4)씨가 각각 시 부문과 소설 부문에서 제32회 백록문학상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4·5·6면

엔터테인먼트 제주대신문이 주최한 제32회 백록문학상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시 부문에서는 '쌀'을 쓴 안재현(수의학과 2)씨가, 소설 부문에서는 '그곳에 있었다'를 쓴 박여주(국어국문학과 4)씨가 당선됐다. 시 당선자인 안재현씨는 총장상과 50만원, 소설 당선자인 박여주씨는 총장상과 70만원의 상금을 각각 받았다.

32회를 맞이한 이번 백록문학상은 지난달 11일 응모 마감해 시 분야는 18명이 접수해 총 132편을



지난달 29일 총장실에서 열린 제32회 백록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시상했다. 왼쪽부터 김동운(엔터테인먼트) 주간, 박여주(국어국문학과 4)씨, 허향진 총장, 안재현(수의학과 2)씨.

소설 분야는 23편을 응모했다.

이번 백록문학상의 심사위원은 대시인 허영선씨와 소설가 오음식씨가 맡았다.

한편 1981년 백록학예상으로

세계지도자 스쿨 열린다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주최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소장 고창훈 교수)는 오는 23일부터 11일간 제주대 서귀포연수원에서 '제2회 제주 세계지도자 스쿨'을 운영한다.

제주 세계지도자 스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후원을 받아 제주4·3의 아픔을 딛고 소수자 인권존중의 세계평화의 섬에 기여하는 지도자양성을 목표로 교사, 시민, 시민단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머스쿨이다.

이번 지도자 스쿨은 세계 환경, 4·3평화, 녹색성장, 해양문화 등 4개의 분야로 이뤄진다. 이 모든 과정은 모리스 스트롱 박사(2011년 전 유엔 사무총장)를 포함한 각 분야 UN기구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수진과

제주대학교 교수진이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세계환경경시대에 걸맞은 국제교수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내 교사들의 참여확대 △교사교육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및 세계지질 공헌투어의 결실을 통한 국제 생태여행프로그램의 개발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발전을 통해 세계환경대학원 설립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호주의 타즈메니아대학교, 프랑스 아메리칸대학교와 루앙대학교, 미국의 시라큐스대학교 등과 함께한다.

고선주 기자

다문화 정착지원 세미나 개최

15일 여교수협의회서

여교수협의회(회장 광영숙 교수)는 지난달 15일 국제교류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다문화 정착지원세미나'를 열었다.

1부에서는 공미희(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현실과 전망',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박사가 '제주지역의 다문화 정착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2부에는 정순여(회계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연심(농협제주지역본부) 차장, 송정국(제주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장, 염미경(사

회교육과) 교수, 오달규(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담당) 씨, 조옥란(제주시 다문화센터) 팀장, 한용길(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과학영재 245명 선발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오홍식)은 올해 중등부 6개 분야, 초등부 3개 분야에서 총 245명을 과학영재로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gifted.jejunu.ac.kr>)참고, 문의: 064-754-3206.

제32회 백록문학상 당선작 발표

시 당선작

쌀

안재현 (수의학과 2)

아버지 손에 달랑달랑 매달려 다녀온 오일장에서, 개구리참외를 사고 돌아온 밤, 나는 급체를 했다 명치끝에 웅송그린 내 굶주림의 증거를 훑어내려고 어머니는 밤을 새웠다, 손가락 끝을 따보기도 하고 가스활명수인가도 내리 두 병을 마셔 보았지만 나는 더욱 돌돌 말아져 끙끙 앓을 뿐이었는데, 다음날 어머니의 등에 업혀 옹하라는 보살 할머니 집에 당도하였고

나보다 더 죽기 일보직전인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곱게 향을 피우며 맞이하시더라, 퍼런 안광이 서린 쪽 찢어진 할머니의 눈, 어지러운 탕화가 걸린 귀퉁한 방안은 다름 아닌 수라(修羅)였다, 땀이 촉촉이 배인 내 손아귀를 기어코 피시더니 손금을 훑어보시고는, 이거 명이 엄청 사나와, 하시더라 어머니는 그저 퍼런 만원권 몇 장을 탕화 앞에 올려놓으시고 싹싹 손을 빌며 절을 하는데, 어머니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 빛을 발하는 것이 보였고

때가 뽀뽀이 긴 대야에 손을 씻은 할머니가 내 앞에 다짜고짜 생쌀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깜짝이야, 생사람도 놀라서 먹은 것이 다 나오겠네 선택선택한 생쌀은 옷 속에도 한 가득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냉수 한 모금 입안 가득 물으시더니, 푸우, 내 얼굴에다 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다 준비였다, 조그마한 손을 내 목 속 깊숙이 집어넣는 거라, 나는 아랑곳없이 절만 하는 어머니가 알미워져서 눈을 딱 감고 개구리 왕눈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다, 필릴리 개골개골 필릴리리, 아아 왕눈이는 왜 일곱 번도 더 넘어졌는데 일어날까 아로미 아버지는 왜 왕눈이를 그토록 싫어하는 걸까, 어제는 아파서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꼭 봐야지 하는 순간, 나는 할머니 손을 꼭꼭 삼켰고 쟁쟁게 손을 빼내신 보살 할머니의 가느다란 손톱에 걸려나온 시퍼런 참외 한 덩이

종종 치성을 드려야 잘 살겠어, 이마에 종종 땀을 흘리며 방을 나서는 내 바지주머니에 할머니는 박하사탕 한 줌과 꼬깃꼬깃 접힌 천 원 한 장 집어넣어 주셨는데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 바지를 내려 보니 그 많은 쌀알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여전히 내 생은 사납고 나로 인해 몇 명이 죽어 간간 까닭이 그 때 내 혈류로 스며든 쌀알의 악발이 다 된 까닭이려니

오늘은 제 발로 치성을 드리러 가야겠다, 필릴리 개골개골 필릴리리



당선소감

“부끄럽고 만족하지 못한 작품… 아내에게 감사”



안재현(수의학과 2)

결국 상은 작품이 받는 것이므로 거창한 수상소감은 풀볼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작품이었다는 점을 밝혀 두겠습니다. 항상 인내심과 격려로 저의 글을 기다려 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상은 기쁘지만 여름이 지나면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평

“궁글려라”

시의 집 한 채 짓기 위해서



허형선 시인

신선한 감수성을 기다렸다. 뭔가 대 학생다운 발랄함과 상상력도 기다렸다. 스마트폰의 숲에서 허우적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한 기다림은 어쩌면 헛된 것은 아닐까. 장맛비 속에 거미줄의 집에 얽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올해 서른두해를 맞은 백록문학상의 젊은 응모작들을 읽어나갔다. 지난 해보다 훨씬 많은 편 수였다. 한번 읽고 다시 또 읽었다. 상상보다 응모작들은 나의 삶과 주변에 대한 고민과는 먼 곳에 있었다.

너무 눈에 익은 시어, 조각조각 이미지의 조합과 나열에 그친 시편들이 많았다. 시란 살아있는 재료들을 모으고, 내 삶의 사소한 체험에 상상력을 입히는 것. 일단 내 가슴 속에 들어온 이미지를 구체화 시켜 내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객관화된 나가 거기에 남는다. 이번 응모작에서는 그러한 구체적 체험에서 흘러나온 시는 드물었다.

당선작 안재현의 <쌀>은 쌀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인식하는 것이 남달랐다. 시적 기교와 이미지가 잘 결합된 시다. 특히 <.../나는 아랑곳 없이 절만 하는 어머니가 알미워져서 눈을 딱 감고 개구리 왕눈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다./필릴리 개골개골 필릴리리...>개구리 참외에 급체를 하고 무당에게 갔을 때 떠오른 개구리 왕눈이 노래에 대한 이미지는 강렬하고, 의미있는 메시지다. 저절적이고 끈질긴 긴장감과 이미지가 대학생의 감수성을 뛰어넘게 한다. 허나 그것이 반드시 시적 완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함께 응모한 <차례> <인류최후의 날> 등은 이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미지의 조합이 허술하고 긴장감이 떨어진다. <차례>처럼, 시와 역사가 결합할 때는 시적 진실을 놓고, 좀 더 고민할 일이다.

비록 선에 들진 못했으나 문경환의 <선인장>은 대상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는 관찰이 돋보였다. 시적 구성이 약한 것이 흠이었다. 이지연의 <비자림의 아침>은 발랄하고 솔직한 감성이 드러났다. 다만 좀 더 집요한 이미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응모작들은 할 말은 있으나 그것을 전달하는데 버거워하고 있다. 너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힌 결과다. 시는 하나의 삶이다. 삶은 구체적이다. 시대와 삶처럼, 하나의 대상을 놓고 치열하게 가슴을 적시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삶에서 객관화된 진실을 빨아내 보자. 내 마음 속에 문득 들어온 그 이미지를 궁글리고 또 궁글려 보자. 거기에 새로운 시의 집 한 채를 지을 일이다. 이번에 행운을 차지한 당선자에게 축하를 기대한다. 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소설 당선작

그곳에 있었다

박여주 (국어문학과 4)

1 꼬았던 왼쪽 다리를 다시 풀고 남자는 다시 반대쪽 다리를 꼬았다. 읽고 있던 책도 신물이 나서 집어 던져버린 남자는 뼈뚫한 자세로 앉아 시비를 걸듯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남자의 왼쪽 가슴에는 '점주 이선두'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선두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내고 있는 유리문은 깨끗했다. 사람의 지문하나 묻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였다. 그리고 선두는 현재 그 깨끗함이 매우 불만이였다. 선두는 오려던 손님도 다시 나갈 것 같아 출입문을 노려보던 시선을 애써 거두었다. 뼈뚫했던 자세도 고쳐 바르게 앉았다. 그러다 이내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두는 일어났다 앉았다가 다시 서기를 계속 반복했다. 통유리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한 명도 들어올 생각을 않는다. 선두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싸고 욕하고 치솟는 감정을 꼭꼭 밟아 눌렀다.

선두가 분노를 식히는 동안에 유리문 밖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문에 얼굴을 가까이 붙인 상태로 가게 안을 살피던 사람이 선두와 눈이 마주쳤다. 짜증 섞인 선두의 표정을 본 그 사람은 움찔, 몸을 떨었다. 선두

는 얼른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문 밖의 사람은 오히려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기겁을 하고서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빠르게 자리를 뜨는 그 사람을 보며 선두는 결국 폭발했다. 뇌 속에 뜨거운 증기가 빠져나올 구멍도 없이 가득 찬 것 같았다. 선두는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서 몸부림을 쳤다. 꼭꼭 밟아 눌러오던 감정이 터진 쓰레기봉투 옆구리로 쏟아져서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선두는 결국 그 깨끗한 유리문에 손바닥지문을 쿵, 찍고 는 밖으로 뒤흔쳐냈다. 길모퉁이를 돌아나간 선두의 시선이 멀리 보이는 건물에 가서 박혔다. 정확히는 그 건물 1층에 위치한 빵집이었다. 모든 짜증과 분노의 근원은 그곳에 있었다.

선두의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선두가 지켜보는 와중에도 그 빵집의 문은 계속 열렸다 닫히며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던 선두가 찾길에 눈앞에 쌓인 물류 박스를 견어쳤다. 위태롭게 쌓여있던 박스가 덜컥거리더니 쿵, 소리와 함께 선두의 발등 위로 정확히 떨어졌다. 비명소리로 지르지 못하고 선두는 자신의 발을 감쌌다. 눈물이 찼끔

솟았다.

“아오! 진짜 짜증나!”

선두는 아픈 발등을 두어 번 문지르고는 절뚝거리 는 걸음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빵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 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선두는 졸음을 참으며 카운터에 앉아 자리를 지켰다.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주말 낮 시간이었다. 나른하고 기운이 쪽 빠지는 날이었다. 선두는 팔을 포개놓고 그 위에 턱을 올렸다.

“하아…….”

뱃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한숨이 선두의 입 밖으로 나왔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만 해도 이렇게 장사가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목이 워낙 좋았다. 병원들이 밀집한 사거리 근처에는 대학교도 있었고 유동인구도 제법 많은 편이었다. 실제로 처음에는 매상이 아주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화장한 불날에 피었다가 밤사이 내린 비로 다 떨어져 버린 벚꽃 같은 찰나의 황금기였다. 선두는 카운터에 한쪽 뺨을 대고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게 장

사고 뒹고 집에 들어가 잠이나 자고 싶었다.

솔직히 선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다.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열정이나 꿈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었다. 부모님 성화가 못 이겨 마지못해 들어간 전문대를 한 학기도 못 채우고 자퇴를 했을 때에도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는 없었다. 단지 학교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 뒀을 뿐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지만 선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었다. 그런 막연한 걱정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족했다. 빛도 없고 큰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장사라도 해보라며 등을 떠민 것은 선두의 어머니였다. 선두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 한다는 프렌차이즈 가게를 한번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선두는 자신만의 가게를 얻었다. 가게를 처음 여는 날, 선두는 세련된 외관에서 오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뿔이게 내 가게구나! 선두는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였다. 늘 트랙 밖에서 남들이 달리는 것만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모두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선 기분이었다. 선두의 자신감은 그곳에서 샘솟았다. 가게의 그럴싸한 외관도 한 몫 했다. 가게의 외관은 곧 선두의 외관이었다. 큰 사거리에는 번듯한 가게가 있고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선두가 느끼는 자신감의 근원이었다. 물론 대출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얻은 가게이기도 했다. 자신의 힘으

로 한 것은 거의 없었지만 선두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선두는 그저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과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랬던 것이 바로 몇 달 전이었다. 선두는 다시 한숨을 내뿔었다. 그때 팔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선두가 자동기계처럼 인사를 했다.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고 입구를 보는 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일은 좀 할 만하세요?”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달고 나타난 슈퍼바이저가 선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왔다. 특별 행사도 없는 데 찾아 온 슈퍼바이저를 선두는 의아해하며 바라보았다.

선두가 내은 커피를 받아 들며 슈퍼바이저는 어찌 말을 좀 고르라는 눈치였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 먼저 묻기도 그렇고, 선두는 그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뜨거운 커피를 훌훌 불어가며 한 모금 마신 슈퍼바이저가 쯤, 입맛을 다시더니 말을 시작했다. 버릇없는 듯 그는 중중주절 사실이 길었다. 그 사실들을 다 제외하고 정리하면 대충 매상이 너무 안 오른다. 점주의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 본사에서 나온다. 며칠 뒤면 과정이 직접 내려 올 것이다. 와 같은 말이였다.

“제가 손님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선두가 통명스럽게 대꾸하자 슈퍼바이저는 다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아까보다 속사정이 깊어 보이는 웃음이었다. 선두도 나름대로 <= 5면에 이어짐 >

어떻게든 장사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매장 관리도 꼼꼼하게 하는 데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봐 가며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슈퍼바이저는 선두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선두는 매장이 떨어지자 회사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선두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런 걸 어찌겠어요?”

슈퍼바이저는 선두의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선두는 엄청난 거리감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도 결국은 회사의 잇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란 사실이 확 와 닿았다. 선두의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도 슈퍼바이저는 딱히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저쪽 가게는 어떻습니까?”
가벼운 목소리로 슈퍼바이저가 선두에게 물었다. 선두는 그가 말하는 가게가 ‘그가게’임을 알았다. 선두가 요 며칠 관찰한 결과 그 가게는 여전히 손님이 많았다. 시기심 반, 우울함 반이 적절하게 섞인 감정이 선두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런 선두의 표정을 보던 슈퍼바이저가 쓰게 웃었다.

선두의 한숨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빵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기사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가게였다. 기사에는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프랜차이즈 빵집들 사이에서 브랜드도 없는 동네빵집이 분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선두는 기사를 떠올리며 또 한숨을 쉬었다.

선두의 표정으로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한 슈퍼바이저는 작게 콧소리를 냈다. 상심에 빠져 아무 말이 없는 선두의 표정을 살피더니 그는 더 할 말이 없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과장님이 이번 달 안으로 들리실 겁니다. 오기 전에 연락은 드릴게요. 아 참, 미리 말씀 드리면 아마 재계약 관련 이야기일 겁니다. 본사 사정도 있고 언제까지 퍼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

그는 선두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단조롭게 말을 했다.
“이선두씨가 지금 1년 계약하셨는데 여기 건물주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아무튼 매상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요?”
“폐점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을 하는 슈퍼바이저 앞에서 선두가 화들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선두가 슈퍼바이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다. 카운터를 나오려던 선두가 안에서 발이 묶였다. 슈퍼바이저는 선두를 잠시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저었다. 가벼운 목례와 함께 그는 등을 돌려 가게를 빠져나갔다. 선두의 초조한 시선이 가게를 떠나는 슈퍼바이저의 등 뒤를 계속 쫓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안녕히 가세요.”
힘이 빠진 목소리로 손님을 보내고 선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폐점’, 그 한 단어가 선두의 머릿속에 확 박혔다. 선두는 폭 속으로 고개를 들었다. 깨끗한 가게 내부를 둘러보는 선두의 표정이 더없이 우울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입술을 꼭 깨물며 선두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폐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선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막혀 있는 벽 너머 어딘가를 보는 선두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2 재덕은 갖 구운 시나몬 롤을 오븐에서 꺼냈다. 시나몬향이 가게 안에 가득 퍼지고 밖에서 웅성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식으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하는데 밖은 벌써 난리였다. 장갑을 벗어 한쪽으론 치우려고 재덕은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가게 안에도 자리가 없어 밖으로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다. 아무래도 양이 좀 초과할 것 같았다.

“어? 나한테!”
재덕이 시나몬 롤을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시나몬 롤은 재덕의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빵이었다. 보통 빵집의 것보다 두 배 정도는 큰데다가 두툼해서 손님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다. 가게에 와서 이것만 사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빵을 들고 가는 재덕의 뒤로 여자들이 서너 명이 따라 붙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유리창까지 두드려댔다. 재덕이 빵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정반을 든 여자들이 우르르 달려붙었다. 미처 몸을 빼지도 못한 상황에서 재덕은 크게 외쳤다.

“다칩니다. 다칩니다고요!”

저마다 손을 뻗으며 다루는 사람들의 귀에 재덕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평일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주말이 가장 고역이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을 닫을 때까지 손님들이 밀어 닦았다. 재덕은 인상을 찌푸리며 겨우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왔다. 재덕이 지친 얼굴로 카운터로 가는 데 등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재덕이 등을 돌리자 늘어난 표정의 사람들 사이로 바닥에 쏟아진 빵이 보였다. 누군가 빵을 밟고 있던 발을 떼고 슬며시 뒤로 몸을 뺐다. 재덕은 입 밖으로 나오려는 욕을 삼켰다. 화를 참으며 재덕은 거칠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재덕의 흥분한 기세에 사람들이 다 옆으로 비켜났다.

가게 안은 조용했지만 밖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들끼리 떠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재덕이 멀리 날아간 빵 바구니를 가져다가 몽개진 빵들을 주워 담았다. 잔해를 쓸어내고 나니 바닥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재덕의 표정은 여전히 험악했다. 재덕이 빵을 치우기가 무섭게 피신하듯 몸을 피해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손에 든 빵을 사람들이 재덕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카운터로 향했다. 그중에 사과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덕의 인내심이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오늘은 장사 안하니까 손에 든 거 내려놓고 나가세요.”

재덕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작은 웅성거림이 점점 큰소리로 변했다. 재덕은 거친 발걸음으로 출입문으로 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 쫓았다. 사람들의 등을 떠밀며 나가려는 행동 대신 재덕은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쪽 둘러보았다. 큰 키에 당치도 좋은 재덕은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다 나가요 당장.”

“몇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던 말이예요!”
높은 톤의 목소리가 재덕의 귀에 쟁쟁 울렸다. 재덕의 얼굴이 확 찌푸려졌다. 재덕은 성큼성큼 소리를 지른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으나 재덕은 여자의 손에 들려 있던 정반을 빼앗았다.

“몇 시간 걸리는 길이면 빨리 가는 게 좋겠네요.”
“뭐라고요?”

재덕의 태도에 가게 안팎으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만 가게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진짜 재수 없게.”
여자는 나가면서까지 재덕의 성질을 박박 긁었다. 그것까지도 재덕은 참아냈다. 재덕은 가게 안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게 문을 잠갔다. 가게 밖에서 영문을 모른 채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재덕은 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앞 유리창의 블라인드까지 내려버렸다.

가게 불까지 다 끄고서 재덕은 주방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갔다. 허리에 묶어 두었던 앞치마를 벗고 재덕은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재덕은 그 소리를 무시했다. 무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졌다. 드디어 가게 앞이 조용해졌다.

재덕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요즘 부쩍 손님이 많아졌다 싶었는데 인터넷에 무슨 글이 올라온 모양이었다. 맛집을 소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재덕의 가게를 소개했고 그게 인터넷 기사로도 났다고 했다. 가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자주 찾아오던 동네 여학생이 말하기를 트위터에서 연예인이 인증까지 남겼다고 했다. 컴퓨터는 물론 최신 스마트폰이 오는 전혀 친분이 없는 재덕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덕이 이런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재덕은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인터넷에 글을 썼던 그 사람도 재덕에게는 일체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한 것이었다. 소개될 당시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그동안 방송 출연은 물론 잡지 귀퉁이에 소개되는 것조차 거절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지니 재덕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재덕은 한숨을 크게 내뿜었다. 혹독한 유명세는 재덕을 힘들게 했다. 그렇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재덕은 머리가 아팠다. 남은 빵은 근처 양로원에 갖다 주기라고 하고 재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토요일 저녁이면 재덕은 항상 새로운 빵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다. 집에서 연구해 온 레시피를 보며 새로운 빵에 전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주중에는 빵을 만들고 팔고, 주말에는 빵을 연구하는 생활이었다. 재덕의 삶은 오직 빵과 동생이 전부였다. 부모도 일가친척도 없는 재덕에는 동생만이 유일한 핏줄이었다.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해 엇나간 동생은 현재 교도소에 있었지만 재덕은 동생을 사랑하고 아꼈다. 인젠가 같이 살게 될 동생을 위해서 재덕은 열심히 살았다. 입에 풀칠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제빵 기술을 배운 덕분에 재덕은 15년 만에 자신만의 가게를 열 수 있었다. 나중에 동생과 함께 가게를 꾸리며 사는 것이 재덕의 유일한 꿈이었다.

재덕은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빠근한 목을 돌렸다. 낮에 시작했는데 밖은 벌써 캄캄했다. 오늘은 이쯤 하자는 생각으로 재덕이 창고로 향하던 길이었다. 가게 뒷문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비쳤다. 도둑일까 싶어 재덕은 문 옆에 놓인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 바로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엇,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를 잡은 채로 누군가 문에 팔려서 옆으로 밀려났다. 재덕은 밖으로 나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빗자루를 겨누며 고개를 돌렸다.

“땀니까?”
“네?”

“여기서 뭐하냐고요.”
남자는 재덕의 말에 멍청한 얼굴을 하고선 가만히 서있었다. 재덕은 치켜들었던 빗자루를 아래로 내렸다. 어두워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아는 얼굴이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사거리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고 있는 짧은 남자였다. 재덕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아는 얼굴이든 아니든 간에 매우의 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재덕은 남자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이 밤에 정문도 아닌 뒷문으로 남 몰래 접근한 이유가 좋은 이유일 리 없었다. 재덕의 기체에 남자가 뒤로 추춤추춤 물러났다.

“아니요, 그게... 저는 그냥…….”

“그냥? 그냥 심심해서 남의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까? 답까지 남어가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남자는 어눌어눌 말을 얼버무렸다. 변명거리를 찾는 그의 입술이 달짝거렸다. 딱 봐도 몰래 잠입하려 다가 걸린 사람의 모습이었다. 거기에 당황하는 모습까지 합쳐지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다. 재덕은 남자를 노려보며 점점 다가갔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당선소감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계기”



박여주 (국어국문학과 4)

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읽고 그 뒤에 나온 수상소감도 여러 번 보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 쓰려고 하니 섯못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제32회 백록문학상 당선작으로 뽑힌 나의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누군가 중요하게 여겨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리고 싶다. 수상소감에 요란스럽게 기쁨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운동주 시인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림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던 운동주 시인처럼, 차라리 말을 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졸업 직전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노라고만 쓰고 싶다.

뒤로 계속 물러서던 남자가 잠시 움찔했다. 남자가 자신의 발 아래를 살피더니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었다.

“이, 이게 여기 있었네!”

남자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손에 든 것을 재덕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가죽으로 된 열쇠지갑이었다. 남자는 재덕의 앞에서 보란 듯이 그것을 치켜들고 문지도 않은 먼지를 요란하게 털어냈다.

“저기 지나가는데 빙글빙글 돌리다가 획 날아갔어요. 찾다보니 담까지 넣었고요. 여기 없는 줄 알고 주안한테 발견하면 연락해 달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그 쪽이 주인 맞죠?”

그가 기세 당당한 표정을 되찾더니 재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남자의 손가락과 얼굴을 번갈아보는 재덕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한가득했다. 재덕이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 남자는 얼른 등을 돌렸다. 빠른 걸음으로 담에 접근하던 남자는 강경하며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재덕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런 재덕을 훑아 바라보던 남자가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그곳에서 사라졌다. 재덕은 담 너머로 그가 사라진 방향을 끝까지 응시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3 이른 새벽이었다. 선두는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렸다. 울리지는 கூ대전화를 바라보는 선두의 표정이 초조했다. 곧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몸을 흔들었다. “야 뭐야, 나 어디쯤 왔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상대의 목소리는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선두는 그것을 깨끗하게 무시하고 제 할 말만 내뿜었다.

“됐고 빨리와. 년 키가 커서 눈에 잘 띄니까 조심해서, 어, 그냥 당치고 빨리와! 할 일도 없으면서.”

상대방은 여전히 불만스러운지 항의조가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선두는 그 모든 불만을 씹어 삼킨 채 전화를 끊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선두는 골목길을 유심히 살폈다. 관찰 결과 재덕이 가게로 가는 경로는 저 길 하나였다. 매년 같은 시간이 나오는 듯하니 아직 재덕이 모습을 드러내려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선두가 재덕의 예상 경로를 열심히 살피는 동안 큰 키의 사내가 선두의 뒤로 다가왔다. 남자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며 선두에게로 허리를 숙였다.

“이선두 요원과 접선 완료했다. 오버.”

선두가 구 앞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야! 너는 무슨 기척도 없이!”

선두가 무심결에 버럭 소리를 지르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네가 조심해서 오라며.”

큰 키와 어울리지 않게 남자는 소심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두는 다시 한 번 골목길을 살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까지는 행인이 많지 않았다. 그 행동을 지켜보던 남자가 목을 빼고 선두를 따라 골목길을 살폈다.

“야 이광철! 넌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선두가 뒤에서 제 행동을 따라하는 광철의 팔을 끌고 고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두는 목소리를 확

낮추고 광철의 목을 잡아 내리곤 이마를 마주 대었다.

“광철야 잘 들어라. 한 번만 설명한다. 알겠냐? 저가게 보이지? 내가 저번에 말한…….”

선두는 비장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다. 광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선두의 말을 경청했다.

어젯밤 재덕의 가게를 몰래 살펴보려다 들리고 말았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재덕의 가게가 불이 켜져 있었던 것에 호기심이 동한 것이 화근이었다. 선두는 뭔가 기회라는 생각을 하며 담을 넘고 뒷문으로 접근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기회가 고사하고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재덕에게 들켜 심정미만 볼 뻔했다. 선두는 자신의 허술함을 인정했다. 준비도 못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것은 명백하게 허술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짜기로 했다. 선두는 재덕이 며칠 전에 손님들과 가게에서 싸우고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린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글이 올라온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이걸 좀 더 크게 터트리면 뭐가 될 것 같았다.

“광철야 연기학원에 기부하라 다닌 건 아니잖아? 그 사람 엄청 화나게 만들어서 가게 막 시끄럽게 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지?”
“걱정마, 나만 믿어.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또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잖아?”

무대 울렁증 때문에 단역도 못 꿰찬 주제에 광철은 뻔뻔했다. 낮 두꺼운 제 친구를 선두는 뚝뚝 표정으로 잠깐 보았다. 한탄이 해주고 싶은 걸 꼭 참고 선두는 광철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일단 작전은 완벽했다. 광철이 잘만 해주면 결과가 완벽할 것이다.

시행 날짜는 오늘, 시간은 손님이 가장 많을 때, 장소는 재덕의 가게였고 주연은 광철과 재덕이었다. 물론 메가폰을 든 감독은 선두였다.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선두는 입술을 깨물었다 놓았다 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선 어떻게 되어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랬다가 들킬 지도 모르니 선두는 그저 광철이 잘 해주리라 믿는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던 광철의 문자가 도착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힌 광철의 문자에 선두의 표정이 밝아졌다.

“성공했구나!”

선두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재덕의 가게를 살폈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얼핏 보이는 재덕의 가게가 여수 섰다. 가서 소란을 좀 피워서 방해도 하고 오라는 선두의 지시를 광철이 잘 이행한 듯했다. 선두는 만면에 떠오르려는 웃음을 꼭 눌러 참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면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차례였다.

그날 밤 대형 포털 사이트에 고발성 글이 하나 올라왔다. <반도의 흔한 시나몬 롤.jpg>라는 제목의 글은 반 좀 먹은 시나몬 롤 사이로 죽은 벌레가 보이는 사진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짧지만 강한 충격에 글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베스트 글로 올라갔다. 댓글이 초마다 늘어갔으며 조회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금방 다른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곧 한 네티즌의 댓글로 인해 그 빵을 만든 가게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철영: 여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로도 뜬 거네요. 두 배 큰 시나몬 롤 파는 K당. <=6면에 이어짐)]

심사평

투박한 문장 거슬렸지만

단단한 플롯과 입심 돋보여

응모작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응모작이 이처럼 늘었다는 것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백록문학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일 터여서 반가웠다.



오을식 소설가

우선 문장력에 문제가 있거나 서사 구조가 엉성한 작품, 그리고 무의미한 수사로 의심되는 스토리를 남발하는 작품을 먼저 제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다음의 5편이 본선에 올랐다.

「광주(狂走)」, 「호수를 사랑한 소년」, 「꽃, 사랑」, 「평범한 일상」, 「그곳에 있었다」.

「광주(狂走)」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시공(時空)의 현정성을 살려 서사 구조를 꾸렸다. 직접 체험 세대가 아니어서 다소 버거울 수 있는 소재였지만 나름 패기 있게 소화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단편 두 편의 분량에 해당하는 원고의 길이가 보여주듯 하나의 단편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욕심이 작품의 완성도에 도리어 해를 끼쳤다. 지금의 원고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절반기량 채내는 수고와 함께, 날것으로 분출되는 분노를 삭여 절제의 서사를 꾸렸다면 작품의 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호수를 사랑한 소년」은 화해를 모색하다 파국을 맞는 남녀의 사소한 이야기다. 사소한 이야기를 본선에 올린 까닭은 안정된 서술의 힘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소설은 결국 ‘인어의 구조물’이므로, 소설 창작에 있어 문장의 숙련도는 작가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작품에서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문장이 문장을 부르는 형식의 노련한 서술이 돋보였다. 그러나 장점이 거기까지지만 미쳐서 아쉬웠다. 서사의 시야가 너무 협소하고 잔잔해서 수필처럼 읽히는 한계가 있었다.

「꽃, 사랑」은 학원 강사인 연상의 여자 친구를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궁색한 남자의 이야기다. 묘사와 서술의 교차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서사를 농치는 능력도 갖춰 기대를 준 작품이다. 하지만 읽고 나니 마치 장편 소설의 프로로그를 접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되려나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작품은 끝이 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야기, 주제의 공간이 좁은 틀처럼 응색되고 고요하다.

「평범한 일상」은 고시원에서의 자살사건을 다루고 있다. 고시원이라는 곳이 대개 희망의 불씨 하나씩 켜두고 모여든 사람들의 절박한 터전, 그러므로 불씨를 꺼트린 사람 중에서는 때로 비극적 결말을 선택할 수도 있을 터, 이 작품에서도 한 여자의 슬픔과 좌절, 더불어 한 남자의 자살이 그려진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그다지 생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소재의 선택과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여자의 스토리를 들려서 쓰는 것보다 자살한 남자에게 집중했다더라면 훨씬 더 삶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같은 상권에서 경쟁하는 제과점 두 곳의 비극적 결말을 다룬 작품이다. 인젠가 뉴스로 떠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소재로 쓴 것으로 보인다. 알려지지 않은 소설화할 때, 바로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라는 사실 때문에 독자를 작품에 몰입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차근차근 넘어서고 있다. 단단한 플롯을 구축해서 작품을 시종 긴박하게 끌고 가는 능력이 돋보였고, 독자의 시선을 작품속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이야기꾼의 입심을 가진 것도 강점이다.

다만 가끔씩 나타나는 거칠고 투박한 문장이 거슬렸다. 또한 가끔 독자의 독법을 의심하는 해설 형식의 개입도 아쉬웠다.

본선에 올린 5편을 읽고 각각의 장단점을 재며 고민하다가, 장고 끝에 인생사의 뻔뻔함과 고단함이 생체기처럼 드러난 「그곳에 있었다」를 집어 들었다. 뽕고 나서 이 작품을 가작으로 할 것인가 당선작으로 올릴 것인가를 두고 또 고민하다가, 신인의 미래를 위해 좀 후하게 투자하고 격려해도 좋겠다 싶어 당선작으로 밀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비록 선에 들지 못했지만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불면의 밤을 보냈을 23명의 응모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분발해서 다음 기회에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명 뺑집인데 진짜 대박! 그리고 여기 가게 주인 불친절하다고 예전에 누가 블로그에 글 올리지 않았나? 손님들 다 내뱉었다고 한 그 글. 진짜 손님을 몰로 보는 것 같네요.]

아빠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댓글을 작성한 뒤 선두는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았다. 자신의 글 위로 꼬리를 물고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꽤구나, 싶은 마음에 선두는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선두는 아침이 빨리 밝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아침이 되자 바로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서는 가게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사를 읽은 모두가 그곳이 어딘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댓글로 알려주기도 했다. 트위터, 인터넷 대형 카페, 포털 사이트들을 가리지 않고 기사가 퍼졌으며 모두가 그 가게를 비난했다.

그 외에도 누군가 이제 조작된 사진이 아니냐며, 비슷한 조작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분위기가 파악 못한다느니, 뻔히 보이는 데 무슨 헛소리냐는 등, 엄청난 비난을 받던 그 글은 곧 삭제되었다. 우르르 쏘린 인터넷 반응은 반대 의견 같은 것은 용납하지 않고 묵살했다.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는 비난은 점점 커져 갔고 조작의 확인 여부는 이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거기에 그 가게에서 예전에 피해를 받은 사제까지 댓글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불친절한 주인 때문에 다신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속속 등장했다. 예전에 조용히 문혔던 블로그 글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당시 목격자의 이야기도 등장했다. 사람들은 유명한 뺑집의 실제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다. 이미 모든 것은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일간지에도 기사가 실렸다. 교묘하게 간판은 가린 채로 올라온 사진은 충분히 그 위치와 상호를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누리꾼들은 그 기사를 볼과 동시에 그 가게가 지은 죄를 확정지었다.

일간지에 기사가 실리고 나서부터 동네는 연일 시끄러웠다. 정확히는 재덕의 가게 앞이 가장 시끄러웠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선두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뒤따라 생각과 광철과 연락도 안하고 인터넷에 올렸던 댓글도 삭제했다. 모든 게 선두의 예상대로였지만 일의 규모만큼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었다. 엄청난 거진 사건에 선두는 점점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다. 시작은 선두의 손에서 부터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선두의 손을 벗어나 있었다. 혹시라도 조작이 틀릴까 선두는 바짝 엎드린 채 밖의 동정만 살폈다.

그동안 여러 방송사에서 재덕의 가게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 왔다. 재덕은 초반에 했던 인터뷰를 빼고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진들은 끈질겼다.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통에 참다못한 재덕이 화내는 일도 있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그 사진만 보고… 아니 무슨 입장이요? 제 입장이요?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씨발! 찍지 말라니까! 카메라 치워!”

물론 재덕의 이런 행동도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K당 별레사건으로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누리꾼들은 열심히 분노했다. 그 가게에 갔던 사람도, 가본 적 없는 사람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재덕의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다.

방송국에서는 재덕을 찍는 대신 동네 사람들을 찾

아다니며 재덕의 평판을 몰았다. 이미 기사의 방향은 정해둔 채로 그저 기사에 덧붙일 살을 찍는 것뿐이었다. 재덕이 교도소를 들락거린다는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지낸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평소에도 불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고 손님들을 내쫓은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수 없이 다 루어졌다.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었지만 이미 짜인 프레임에 따라 이야기는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다.

“저기가 별레 나온 그 빵가게 맞죠?”

“네… 뭐 그렇거나 봐요.”

선두는 당황했으나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님의 말을 받았다. 재덕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자연스럽게 선두의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다. 일단 근방에 빵집이 선두의 가게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일간지에서는 아예 재덕의 사례를 들어 동네 빵집의 단점에 대한 논설을 다루었다. 모든 동네 빵집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빵집이 훨씬 낫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세를 탔다. 철저한 위생 점검과 대기업이 갖는 브랜드 이미지가 한몫했다. 반면 재덕의 가게 때문에 동네 빵집의 평판이 나빠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모든 분노의 화살은 재덕에게로 날아갔다. 모든 흐름은 선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선두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것을 애써 떨쳐냈다. 폐점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가까운 곳에 빵집이 들쭉이나 있는데다 명백히 자신의 가게가 장사가 안 되었던 것은 재덕의 탓이었다. 선두는 그렇게 믿었다. 모든 것이 선두의 뜻대로 되었는데도 선두는 무서웠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진행되었고 인연도 선듯 선두의 편을 들어주었다. 선두는 거대한 몰살이 뒤에서 몰아치는 느낌이였다. 그 상태에서 선두는 가만히 서있을 수도 없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등으로 쏘아지는 거대한 몰살에 따라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뛰어들었고 거친 몰살도 자신이 불러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몰살에 자신이 휘둘리는 느낌이였다. 선두는 그 거친 몰살에 누군가 빠져 죽는 것을 보았지만 손을 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두 자신도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에 고개만 빼꼼 내밀어 눈치를 보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

늦은 밤 선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저렇게 자멸할 줄은 몰랐네요. 저희야 뭐 잘 됐죠.” 낮에 슈퍼바이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선두는 걸음을 멈췄다. 슈퍼바이저는 웃으며 말했다. 선두는 차마 웃으며 대꾸할 수가 없었다. 선두의 눈길이 자동으로 재덕의 가게로 향했다. 폭풍이 한차례 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재덕의 가게는 황폐한 적막에 싸여 있었다. 선두가 조심스럽게 재덕의 가게로 향했다. 불이 꺼진 선두의 가게를 보는데 주방 사이로 불이 켜진 것이 보였다. 희미한 빛이 불라던지 사이로 흘러나왔다. 선두는 조심스럽게 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라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담 가까이 서서 가게를 보는 데 뒷문이 열렸다. 선두가 몸을 숙여 담 아래로 바짝 붙었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곧 깊은 한숨소리가 귀에 들렸다. 선두는 허리를 걸레 숙인 채로 살금살금 그 자리를 벗어나었다. 뒤에서 들리는 재덕의 한숨소리가 선두의 심장을 무겁게 두들겼다.

재덕은 텅 빈 가게를 한차례 훑어보았다. 가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사정을 이야기할 필요

도 없었고 모든 것이 미리 준비가 된 것처럼 일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모두가 재덕이 떠나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지는 재덕 자신도 몰랐다. 눈을 뜨고 일어나니 벌써 모든 것이 벌어진 다음이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모든 것은 사실처럼 세상에 알려졌다. 재덕은 생각했다. 진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으니 그것은 진실이 되었다. 억울함에 잠도 오지 않는 날들이었지만 재덕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주변에도 도와줄 이가 없었다. 가게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었다. 재덕의 가게에서 샀다면 그 빵에 별레가 들었는지, 그게 자신이 만든 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재덕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 뻔뻔함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재덕은 그간 얻은 유명세 보다 더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누명이라고, 억울하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것은 벽에 부딪힌 메아리 소리뿐이었다.

언론사는 물론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찾아와 재덕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 어떻게 알았는지 재덕의 휴대전화로 문자와 익명의 전화까지 걸려오기까지 했다. 전부 욕에 비노이었다. 거기에 재덕의 가게에 누군가 낙서를 해 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간 재덕은 가게의 꼴을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건물 유리창과 벽은 온통 뽕 간색이었고 상스러운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다. 고향을 지르려던 재덕은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있는 건물주 할머니를 보았다. 재덕은 분노를 삭이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덕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끝까지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잘난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엇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는 재덕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갔다.

처음에는 모함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생각이 분노가 차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지금, 마지막으 재덕에게 찾아온 것은 허망함이었다.

재덕은 마지막으로 가게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던 동네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재덕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 무관심 밑에 깔린 오해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재덕은 그 오해를 풀 힘마저 잃어버린 상태였다. 재덕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뒤돌아섰다.

4 선두는 어딘가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가 있었다. 막 슈퍼바이저와 함께 건물주를 만나 재계약 관련 이야기를 마친 참이었다. 이번 재계약에는 임대료를 더 올려야겠다는 건물주는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반면에 슈퍼바이저와 선두는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러 차례 계속 되면 이야기는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T기업에서 계속 접촉을 했던 모양입니다. 임대료 두 배를 주겠다고 했네요.”

그럼 저희가 임대료를 더 주더라도 재계약을…….” “원래 임대료도 높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직영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도와 줄

수가 없어요.” 슈퍼바이저는 영 방법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선두만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전에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라고 하더니 지금은 임대료가 높아져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회사 측과 다시 한 번 이야기는 해보겠다는 불확실한 말을 끝으로 슈퍼바이저는 가게를 나갔다. 그가 떠나고 가게에 남은 선두는 모든 것이 허탈해졌다. 끝이 정해진 길을 멀리 돌아서 온 느낌이었다. 선두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슈퍼바이저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드디어 슈퍼바이저가 선두의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대뜸 선두에게 신문을 내밀었다. 그가 펼쳐 보이는 신문 기사를 읽는 선두의 표정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이렇게 회사 이름에 먹칠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슈퍼바이저 앞에서 선두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신문 기사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자작극이라는 제목으로 선두의 자작극을 폭로하고 있었다. 글을 올린 선두의 아이피(IP)주소는 물론 매우 지망생으로 자작극에 가담한 K씨로 광철의 이 고로 나와 있었다. ‘어떻게… 아니 누가…’ 완성이 지 못한 단어들이 선두의 머릿속에 방빙 뿔뿔였다. 선두는 급하게 광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기계적인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면서 선두는 돌처럼 굳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 내렸다. 슈퍼바이저가 매서운 얼굴로 선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흥흥한 기세로 들어온 사람은 재덕이었다. 재덕은 슈퍼바이저를 지나쳐 뉘이 나간 채 서 있는 선두에게로 다가갔다.

“당신이야?”

재덕도 신문 기사를 본 모양이었다. 하얗게 질린 선두는 재덕의 손에 목살이 잡혔다. 그런 재덕을 뒤에서 슈퍼바이저가 말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잠깐… 아니,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말리는 슈퍼바이저를 밀어내고 재덕은 선두의 목살을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다.

“당신이지!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아… 음, 아니…….”

선두가 목살이 잡힌 채 바둥거리며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도대체 왜!! 왜!!! 나는, 나는…….”

울부짖음에 가까운 재덕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선두의 가게 안을 훑다 거리기 시작했다. 재덕이 주먹을 쥐더니 위로 치켜 올렸다. 목살을 들어 천 재덕의 팔을 잡아 뜯던 선두의 두 손이 달달 떨려 왔다. 치켜 든 재덕의 주먹이 보고 선두는 눈을 감았다. 재덕은 치켜 든 주먹에 힘을 주었다. 겁에 질린 선두는 재덕에게 잡혀 달달 떨고 있었다. 재덕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재덕은 주먹을 내리곤 선두의 목살 던지듯이 거칠게 놔버렸다. 바닥에서 뛰려는 선두를 바라보며 재덕은 거친 호흡을 골랐다. 선두도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재덕은 그런 선두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풀어나지 못한 분노에 절로 주먹이 힘이 들어갔다.

“네 놈이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해?”

아름니를 꼭 깨문 재덕이 힘주어 말하자 선두의 표정이 울 것처럼 바뀌었다.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냥? 당신은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지. 그래, 이번에도 심심해서 그랬나?”

재덕은 선두가 자신의 가게에 몰래 들어오려고 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말했다. 선두가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제가 대신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슈퍼바이저가 말을 꺼냈으나 재덕은 그저 거칠게 밀고는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슈퍼바이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재덕을 따라나섰다.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선두만이 비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진 채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K당 별레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은 K당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남자가 일부러 별레를 집어넣은 빵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남자가 연기를 공부하는 친구까지 동원해서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몇몇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작인 줄 알았다며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쉽게 타사냥을 하는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선두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는 젊은 점주들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신기도 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모든 비난은 선두에게로 향했다. 곧 자작극을 벌인 점주에게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대기업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사람들은 죄비 지은 사람이 찢값을 받는다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5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모퉁이에 커다란 천막이 건물 1층을 가리고 있었다. 훑다거리며 천막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내 시선을 돌리고 제 갈 길을 찾았다. 가게 오픈 날짜가 커다랗게 인쇄된 천막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카페의 오픈 날짜를 홍보하고 있었다. 그렇게 낮과 밤사이 천막 뒤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공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천막을 거두는 동시에 끝이 났다.

모퉁이에 새로운 카페가 하나 생겼다. 사람들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새로 생긴 카페를 구경했다. 카페는 통유리와 원목 느낌의 외벽으로 무장한 채 그 일대의 가게들보다 서너 배는 더 반짝이는 모습이었다. 먼지 하나 없는 유리창과 새롭게 칠한 갈색 외벽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가게 앞은 커다란 화분이 출입문으로 가는 카펫의 양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붉은 카펫을 밟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점원들이 개업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 아름 빵을 들고 나온 점원들은 테이블 위에 접시를 놓고 빵을 잘랐다. 슬쩍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점원들의 호객행위에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내 테이블은 빙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렸다.

한때는 뺑집이었던 그곳은 몰라보게 달라진 채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그곳에 있던 과거를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는 거친 몰살에 발붙여진 사자처럼 먼 무인기의 잔해가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끝>

‘2012학년도 도외답사’ 를 다녀와서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여유로움 즐길 수 있어



임 대 범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2

모든 여행은 항상 기대로 시작하는 것 같다. 솔직히 처음에는 마땅히 뭘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무엇인가 얻어 가져가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대로 시작한 이번 답사는 내게 여유와 현재라는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다.

우선 첫날 미항사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묵묵소리와 종소리의 경건함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졌고 이 고요함을 벗 삼아 주지스님의 차담이 있었다.

주지스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행동에 충실하면 근심이 없다고하신 말씀이 가장 내 마음 속 깊숙이 들어왔다. 또한 지금 보면 부끄러운 과거의 자신의 행동도 그 당시에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므로,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하며 매 순간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해주셨다.

정말 쉬운 생각인데 왜 나는 여태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나하며 역설적이지만 또 다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었다.

차담 이후에 참선 시간에도 얻는 것이 있었다.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잊고 마음 속으로 초를 세면서 참선을 하면서도 나는 끝내 마음속으로 10초를 울골이 세지 못했다. 모 든 하는 일에 근심과 잡념을 갖고 살아 보았다. 덕분에 여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이러한 깨달음의 인연은 미항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말을 ‘곽재구’ 시인에게도 들었다.

순천만에서 곽재구 시인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곽재구 시인과 비슷한 말을 했다. 하루를 초로 나타내면 86400초인데 1초 1초를 모두 의미 있게 쓸 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크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작음을 보는 눈을 갖고 그 작음에 정성을 쏟을 때 나는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무언가를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1초도 빠짐없이, 꿈에서도 시를 생각하며 시를 쓰셨다는 시인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현재는 영어로 present이다. 현재를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모든 생애에 빠짐없이 아로새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오롯이 정성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생애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present=present’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얻었지만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었다. 내 꿈이 교사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답사를 통해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며 느끼는 만큼 사랑한다.’라고 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는 교육을 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닐까 한다.

요즘 나는 스스로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렇기에 내 마음속 그릇을 비우려는 마음으로 이번 답사를 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답사를 통해 되레 그릇 속에서 또 다른 그릇 하나를 만들고 왔다. 하지만 결코 무겁거나 부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그릇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지난 4월 18일 해남 평림 미술에서.



현 승 연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2

도외답사를 가기 전 날 밤, 나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전날 느꼈던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 새로운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 여행을 통해 동기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얼마나 많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을 설쳤다. 한편으로는 매일 매일을 과제와 씨름하며 바쁘게 보내다가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가 반가웠다. 이런 설렘과 기대를 안고 도외답사는 시작되었다.

첫 날 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으려면 나는 당연히 ‘템플스테이’를 꼽을 것이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절에 가본 일이 없는 내게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미항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렘했다. 그곳에서 불상에 절을 올리고 주지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롭고 의미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절에 있으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초조해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이다.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아침 일찍 하루를 계획하는 스님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도 작은 인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또한 예뻐 후

삶을 되돌아본 반성과 계획의 시간

절의 앞마당을 찬찬히 돌며 하루를 반성하는 동안, 이렇게 나를 돌아볼 여유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음을 느꼈고 내가 얼마나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절에 있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둘째 날은 별교에서 포막잡기 체험을 했다. 갯벌 또한 내게는 처음이었는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갯벌을 직접 만졌을 때의 미끈한 촉감과 포막을 갠 때의 기쁨은 아마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 갯벌 체험을 마친 후 가졌던 곽재구 시인과 만남도 뜻 깊었다. 하루 동안 주어진 86400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시인의 말씀은 내내 헤쳐야 하는 내가 자극제로 삼을 만한 훌륭한 가르침이었다. 또 ‘내게 가장 중요한 시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입니다.’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가치를 잘 모른 채 과거만을 좇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됐다.

위에 적은 것 외에도 이번 도외답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땅끝 마을 해남에 가보기도 했고, 다 같이 모여 화합의 밤을 함께 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전주에서 유명한 해장국을 먹기도 했다. 모두가 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 특히 평상시에 같 기회와 자주 없는 별교나 해남을 가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

솔직히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지만 언제 템플스테이를 해 보겠는가. 또 언제 직접 갯벌에서 포막을 캐 보겠는가. 2박 3일이 짧은 시간임에는 분명

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을 체험하고 값진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다.

이번 도외답사를 한 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좋은 곳에서 함께 하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깨끗한 남도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미항사에서 따뜻한 애기를 해주신 주지스님, 갯벌이 좋아 대학 졸업 후 다시 갯벌로 돌아왔다는 별교의 갯벌 선생님, 순전히 시가 좋아 시 쓰기를 시작하셨다는 곽재구 시인이 바로 그 분들이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또 그분들 모두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가치를 아주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을 보며 나는 어떤지,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만나게 된 분들 외에 내 주위에 항상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곤혹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챙겨주는 분들이 나의 동기임을,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배님들과 교수님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동시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가 도외 답사를 통해 배운 것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 도외답사는 단순한 여행의 의미를 넘어 반성과 계획의 시간이었으며 이 시간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간직될 수 있길 희망한다.

무문유설



김 경 락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해양산업경찰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제주대학교 실습선인 아라호를 타고 근해부터 원양까지 실습을 간다. 그 중에서 가장 일정이 긴 원양실습은 3학년 1학기 때 간다. 올해는 50명의 학생들이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온 후, 6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해를 다녀왔다. 나는 이 중에서 7박 8일의 일정으로 50명의 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해를 다녀왔다.

바다에서 배를 타본 경험이라고 교고 수학여행 때와 육지에서 타던 차를 제주도로 가져 오기 위해 완도에서 제주도로 타 본 두 번의 경험이 전부였던 나는 배 멀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배에 올랐다.

배에 올라타서 일주일간 머물 방을 정리하고 짐을 푸는 동안에도 배는 조금씩 출렁

이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있으니 배는 아직 출항도 안 한 상태인데도 이미 두통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6월 1일 오후 6시에 아라호는 제주항을 떠났다.

2시간 후 아라호는 비양도 근해 해상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정박을 하였다. 바다 한 가운데 정박한 아라호는 바다와 함께 출렁거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배멀미를 할 것 같아 미리 준비한 멀미약을 한 알 꺼내 먹었다. 오후 11시경에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우니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침대와 함께 내 몸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면서 왔다 갔다하기 시작했다. 멀미에는 자는 게 최고인데,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야 하나 생각하면서 아라호에서의 첫날 밤을 억지로 청했다.

다음날 아라호는 본격적인 항해에 나섰다. 비양도 근해에서 중국 상해 근해까지 쉬지 않고 20시간 정도를 가는데 그때 배의 흔들림은 정박해 있을 때의 흔들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 정도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멀미를 할 것 같으면 자면 된다는 선임교수님들의 말이 귀가들 올리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다.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나오지 않고 책도 볼 수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빨리 시간이 흘러 상해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학생들이 머무르는 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는 누군가 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해 놓은 구토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 알의 멀미약을 먹었다. 외부로 흔적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배멀미의 마지막 단계인 100에 해당하는 배멀미라고 한다면 난 그런 행위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80 정도에 해당하는 배멀미

를 이미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라호는 중국 상해 근해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하루를 정박한 후, 6시간 정도를 더 가서 상해에 도착하였다. 아라호에 올라탄 지 3일 만에 배에서 내리니 난생 처음 와보는 중국 상해에 왔다는 기쁨보다 흔들림이 전혀 없는 평평한 땅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상해에서 머무르는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정박해 있는 배에서 잠을 자고, 6월 7일 오후에 상해를 떠난 아라호는 쉬지 않고 27시간 정도를 항해하여 다음날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7박 8일간의 일정동안 나는 다행히 100에 해당하는 배멀미는 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니 거의 20일 정도의 시간동안 배멀미와 싸우면서 아라호를 타고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기고



고 경 희
국어국문학과 2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다. 다들 시험 기간 동안 느껴온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여가를 즐기기에 바쁘다. 물론 시험 기간은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그냥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시험 기간 동안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학교 도서관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출입하는 시험 기간 도서관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만큼 쓰레기도 함께 넘쳐난다. 열람실에 들어가 좌석에 앉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책상 위에 보이는 쓰레기이다. 좌석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책상 위

도서관 공공예절 엉망... 개선책 마련을

에 전 이용자가 버리고 간 음료수 캔이나 종이컵 치우는 일이 된다. 열람실만이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칸칸마다 화장지가 넘쳐 바닥까지 화장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변기 또한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면 화장지는 더욱 더 쌓이게 되고, 결국 화장실 안은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는 도서관도 문제이지만 열람실 자리를 독점하는 양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분명 열람실 좌석에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지만 열람실 좌석을 표시하는 기계에는 사람이 있다고 나타나 있다. 그 시간에 좌석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인들 자리를 맡아두려고 기계에서 열람실 좌

석 표를 발권 받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좌석 주인이 도서관에 없는 동안 비어 있는 좌석은 아무 효율성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빈 좌석은 있는데 사람들은 기계에 표시된 좌석을 보고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왔던 발걸음을 돌리고 만다. 빈 좌석에 앉고 싶어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비켜달라고 하는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까봐 빈 좌석을 이용하지도 못한다.

좌석을 찍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좌석 표를 기계에서 발권 받지 않은 채로 좌석에 책들과 방석, 각종 생활용품들을 쌓아놓고 자기 집인 양 자리를 독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디 열람실 좌석뿐인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컴퓨터 좌석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는 좌석 발권을 받지 않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컴퓨터 좌석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하다.

독자기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과제나 자료 검색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름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망치고 있다. 개인만이 아닌 학생들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을 깨끗하고 개념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공공예절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개념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으로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을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동 민
전기공학과 2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는 해외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닐까? 나는 외국어교육원을 시작으로 아주 온이 좋게 이 세 곳을 둘러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외국어교육원은 글로벌 대학생활의 시작이다.

외국어교육원을 만난 새내기

뜻밖했던 새내기 대학시절이 생각이 난다. 쌀쌀했던 작년 3월, 학생회관 옆을 걸어 가다가 퐁퐁 휘날리는 외국어교육원 수업 안내를 보았다. 고등학교 때 입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 사귄 학과 친구나 선배, 동아리 사람들과 놀기 바빠서 외국어교육원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자유라는 설렘이 가시자 무심코 지나쳤던 외국어교육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놀고 나니 '새로운 걸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 외로 꼭 필요한 토익부터 재미있는 회화까지 다양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입시라는 꼭 막힌 영어에서 벗어나 지 얼마 안 돼서 지긋지긋한 머리로 하는 영어가 하기 싫었다. 단어 외우고, 리딩, 리스닝 듣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났다. 몸으로 하는 진짜 영어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Conversation Level 2 Ryan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첫 시간, 고등학교 때 영어를 싫어했던 내가 제 발로 수업을 신청해서 그런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KISS 룰, Keep In Simple & Short를 가르쳐 주었다. Ryan은 KISS 룰로 유도해서 영어가 어렵지 않

외국어교육원 통해 글로벌 대학생할 체험

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강좌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이며 재미있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강좌가 끝날 때쯤 되니 우람한 소나무 같은 Ryan과 농담도 던지며 서로 웃을 수 있었다.

처음 '영어는 쉽다.'라는 생각과 재미를 느껴서 1학기 내내 외교원 마니아가 되었다. Conversation Level 2, Conversation Level 3 전부 오전 8:00 수업을 들으며 새내기 대학생활의 아침을 항상 영어와 함께 시작했고, 날씨가 흐려도 비가 내려도 마치 막까지 출석을 했다. Level 2 다음으로 들었던 Level 3은 Evan 강사의 수업을 들었다. 마냥 재미있었던 Ryan 수업과 달리 실질적으로 영어 회화를 배웠다. 의사소통은 KISS 룰만으로 충분하지만 대화는 조금 어려웠다. 어느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않았다.

하지만 외국어교육원 강사들은 좋은 강사들이다.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학생들의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강사들이 수정을 해준다. 특히 전형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마는데, 주저할 때 계속 말해보라고 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말할 때 틀린 문법이라도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틀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말이 틀릴 때도 있으니 외국인들도 틀릴 때가 있다. 이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이며, 차례로 들어왔던 수업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을 향한 발걸음의 준비 운동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도 생각하면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외국어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은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학생회관 옆에서 바람에 펄럭이며 신입생들

을 환영하는 외국어교육원 안내문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신입생들은 반갑게 맞아주는 커녕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차근차근 영어회화의 단계를 넘어가며 듣고 있던 중 싱가포르 인터십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서류에는 통과했지만 문제는 바로 영어 면접이었다. 다행히 영어회화를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울렁증이 사라진 상태였다. 바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회화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온 것 같아서 기본이 좋았고, 다행히 합격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인터십 여행을 합격하고 또다시 공교로 난 것은 필리핀 교류학생이었다. 욕심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보내주는 것이라 따로 저렴하고 질도 높을 것 같았다. 그리고 모집인원도 많아서 무난하게 합격통보를 받고 싱가포르로 떠났다.

확연히 외국어교육원에서 배웠던 영어보다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 더 어려웠다. 우리의 안 좋은 발음을 받아주는 외국인 강사와 달리 미국식 영어도 아닌 강세가 이상한 싱가포르 인들과 대화를 하하니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달간 싱가포르에서 지내면서 싱가포르의 문화와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다. 외국어교육원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

필리핀 교류학생 또 다른 경험

싱가포르 인터십이 끝나고 급히 떠난 곳은 필리핀 교류학생이었다. 필리핀 하면 여학생인 것처럼 우리는 일반 선택으로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영어 수업만 듣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았다. 그래서 주말마다 비행기를 예약하고 다른 섬에 놀러가고 튜터들과 대화를 하면서 필리핀의 문화와 자유로운 회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주로 여행을 많이 떠났다. 한국에서 여행하

독자기고

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박5일 6박7일 등등 몸이 지칠 때까지 여행하고 또 여행했다. 이제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흥미롭다. 이런 것이 정말 글로벌 마인드가 아닐까?

필리핀 교류수학 중에 문득 생각난 것이, 바로 미국을 가고 싶었다. 그때쯤 룸메이트가 다음 학기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려는 사람이어서 미국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토폴이었다.

내가 만일 외국어교육원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해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싱가포르 인터십 사업을 찾지 못했을 수 있을 수 있고, 영어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교류학생과 미국 교환학생으로 이어지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해외에 나가고 싶다면 외국어교육원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실력을 쌓고 다양한 기회를 보고 준비하고 잡아야.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할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ac.kr

동문칼럼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기말고사를 치른 학교는 곧 여름방학을 맞아 차분해졌을 것이다. 영어영문학과 신입생으로서 1983년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를 기억한다.

당시 학교 생활보다는 학보사 학생 기자 역할에 빠져 있을 때였다. 제주대신문 수습기자로서 사회과학대학 강당 위층 공간을 변형한 10평 남짓한 편집국 사무실에서 지냈다. 한 기수에 5~6명씩 수습기자를 포함하여 정기자, 데스크 등 15명 내외가 2학기 신문 발행을 위해 방학을 보냈다. 당시 학생회도 학도호국단 체제로 운영됐고 85년에야 학생 자율기구로 총학생회가 출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학원 자율화나 학내 민주화니 해서 집회도 많았고 민주화의 열기도 높았던 때였다. 매일 학내 모든 벽면이 대자보로 넘쳐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3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어도 역시 대학이란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그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또한 때때로 학원의 자세로 배움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은 누구나 에게나 제자리가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제자리가 있는 법이다.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그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구별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든 그 자리 값을 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 여의 방학을 시작하는 모두가 그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어떠한 노력을 다했으며, 방학을 어떠한 다짐과 계획을 갖고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마다 일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겠으나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일관된 목적은 대학의 본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학문 연구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의 사명이 '학문 탐구와 인격



정 찬 식
영어영문학과 83학번
제주도체육회 운영과장

도야'라고 믿기에 학생은 더 많은 비중을 뒹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부의 목적을 취업에 두기보다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았으면 한다.

창조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폭넓은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키워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로 대학 생활이 정립돼야 한다. 수시로 자기 성찰과 확인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대학이 기성사회의 예리한 비판력으로서 현실 참여하는 또 다른 기능으로 양분되어 있다. 하지만

학이란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그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또한 때때로 학원의 자세로 배움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은 누구나 에게나 제자리가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제자리가 있는 법이다.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그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구별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든 그 자리 값을 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 여의 방학을 시작하는 모두가 그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어떠한 노력을 다했으며, 방학을 어떠한 다짐과 계획을 갖고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속 장치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과 본분이기이다. 교수와 직원은 고등교육 기관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도덕성을 상기해야 한다. 학생은 불타는 항학열로 도서관에 불 밝힐 때 제주대학교의 앞날이, 더 나아가 이 땅의 앞날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방학을 맞는 제주대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평범한 진리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지혜를 타득하기 바란다.

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김 예 술
생활환경복지학부 1

TV를 보다가 '일(日) 국우파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조선시대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약탈했고 임진왜란으로 침략의 본색을 드러냈다. 약 300년 후 일본은 조선에 강제 점령했다. 지금도 역시 독도를 뽐내며 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많은 갈등이 산재하고 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극약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 하나 없는 일본의 뻔뻔함에 분노가 이는 것은 물론,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서도 뒷마무리를 아직까지 잘 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사후 처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제 강점기 후 처리한 것은 무엇인가? 진일과 자손들은 보란 듯이 고위관직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고 있는 반면, 독립을 위해 한 몸 바친 독립운동가 분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위안부 문제에 또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를 겪었던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 매춘부라고? 듣는 나로서도 화가 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정신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일본 자신들이 과거의 저지를 죄를 사죄하며 누우치는 것임을. 또한 자신들의 싸움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같이 함께 하는 싸움이기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일본과의 국제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아닌 한 여자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다른 여러 문제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 글을 마친다.

바로잡습니다

2012년 6월 6일자 8면 '평범한 직업은 가라' 기사 본문 중 이길주 씨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라고 쓰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길주 씨는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심리학이 아닌 인도철학을 전공했음을 밝힙니다.

특성화 사업단 현장 <12> 제주양채류RIS사업단

친환경 양채류를 활용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브로콜리, 양배추, 파슬리, 피망... 이제 제법 우리의 식탁 위에 익숙하게 올라오게 된 서양채소들이다. 약칭 '양채류' 들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암작용 등 몸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웰빙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제주를 청정한 섬의 이미지로 웰빙 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채류 생산의 최적지다. 이러한 요건에 힘입어 제주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브로콜리는 전국 생산량의 81.2%, 양배추는 40.6%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산 양채류는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원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고, 가공 산업은 1차 단순가공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양채류RIS사업단(단장 임상빈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이하 사업단)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제주의 친환경 양채류를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에서 '제주양채류 웰빙식품 전략육성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8억7000만원 가량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양채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마케팅·홍보사업, 기업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양채류의 영양적·기능적 우수성을 살린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의 지원에 힘입어 제주의 친환경 양채류들은 각종 주스, 빵, 초콜릿, 과자 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사업단은 13개 기업의 총 20개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푸른들은 신선초(환)과 신선초 분말을, 제주과랑은 키위야채주스와 우리밀 친환경 브로콜리 빵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 (주)푸른제주와 (주)일구공공은 브로콜리 초콜릿을, 돌하루방식품에서는 브로콜리 장아찌를 만들었다.

기술개발에 따른 국내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도 눈에 띈다. 사업단은 '브로콜리 용매 추출물의 함양증 활성'으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또 브로콜리 장아찌 제조기술을 개발해 (영)제주인제주에 이전하기도 했다. 또 사업단은 양채류 제품의 포장디자인도 지원하고 있다. (주)메이드인제주의 '브로콜리 비타씨' 제품을 비롯해 총 7개 업체의 제품 포장디자인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 양채류 제품이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지난 2월 사업단이 한라산 등반로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제주양채류 알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 있도록 마케팅·홍보 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제품 홍보와 관측활동을 활발히 벌여 양배추·파프리카의 일본 수출과 '브로콜리 비타씨' 제품의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애월읍 브로콜리 축제, 세계한상대회, 2011 Korea Food Expo 등 국내 박람회 9차례에 걸쳐 참여하기도 했다.

제주 양채류 관련 산업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인력양성사업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사업단은 양채류와 관련된 교재를 5건 개발해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예비취업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해 관련 업계에 3명이 취업했다. 더불어 양채류 관련 기업에 HACCP 교육을 시행해 2개사가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이밖에도 사업단은 양채류 사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 RIS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17건 체결하고, 지역내의 혁신기관과의 교류 협력 15건을 하기도 했다. 사업단의 노력에 힘입어 제주의 양채류

생산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좋은 가격으로 양채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참여·수혜기업인 제주도내 유통·제조업체들은 신제품 가공 기술을 전수받아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와 매출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업단은 앞으로 양채류 신제품 개발과 기업지원을 지속하고, 양채류 관련 새로운 업체의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민정(제주양채류RIS사업단) 연구원은 "사업단은 아직까지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적 노하우를 더 쌓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양채류 가공 제품들이 단순가공제품 위주이기 때문에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사업단과 관련기관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부속시설 탐방 <20> 해양스포츠센터

“스킨스쿠버·요트 전문인력 양성 통해 체험하는 제주관광의 길잡이 역할”

바다의 계절 여름, 점점청명 물놀이만 하기엔 진부하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푸른 제주바다를 가르느 요트, 제주의 바다를 4D로 만끽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이들이 있다. 해양스포츠센터의 직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스킨스쿠버 교육 장면.

해양스포츠센터(센터장 류재청 체육학부 교수)는 지난 2009년 관광경영학과 디스턴 명예교수가 요트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해양스포츠 관련 장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선했다.

다른 학교도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부속시설이 있지만 장비나 인력이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은 제주대가 유일하다.

현재 센터는 운영위원 5명, 레저스포츠 교수 4명, 인턴조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에서는 스쿠버와 요트 등 해양스포츠 분야를 가르쳐 많은 수요자와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강의는 주로 체육학부 전공에 속해 있는 체육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습 강의의 경우 체육학과가 아닌 일반학생들까지 참여시켜야 하기에 힘든 점이 많다. 지도자가 한정된 관계로 물속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강의당 학생을 30명 이내로 제한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센터에서 배출한 전문인력들은 도외에 진출해 군인 UDT에서도 교관으로 초빙될 정도로 임지가 높다.

해양스포츠센터는 강의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연구집·논문집을 2권씩 발행한다. 또한 수중정화 봉사활동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요트를 가르쳐주는 교육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 방학 중에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해 육지부 학생들과도 학점교류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센터는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 창출이 잘 이뤄지는 방향으로 센터 운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류재청 센터장은 “최근에는 체험 위주의 관광이 뜨고 있는 추세”라며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 도내에서 직접 식사나 숙박을 통해 제주도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또한 “해양스포츠센터가 활성화된다면 제주도 관광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신혜 기자

해외시장 개척 통해 중국·일본 사로잡아

지원사업 공모 통해 중소기업 적극 육성

제주양채류 식품 상품화·유통전략 연구

참여기관으로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RIC), (영)제주에코푸드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도록 40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제주 양채류와 관련된 상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아끌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생 아카데미는 지난날 5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자신감 통해 스피치 능력을 키워라

좋아하는 일 찾아 노력하는 게 경쟁력

신뢰와 호감을 주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예진 서울현대전문학교 교수

스피치란 지식, 정보를 상대방이나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스피치 강의는 취업 준비의 필수 코스여겨질 만큼 말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표 수업이 많아 대학생들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막상 친구들, 교수님 앞에서 서면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작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다. 자신감 넘치는 스피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고 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스피치를 잘하려면 자신감이 전제조건이다. 스피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자신이 있다는 태도로 접근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좋은 스피치를 구사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는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가슴으로 얇게 숨을 쉰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조금만 말해도 목이 아프다. 게다가 목을 조여 아이처럼 목소리를 내면 오래 듣기 어렵다. 반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뿜는 복식 호흡이 습관이 되면 목소리도 절로 좋아진다. 목젖을 열고 호흡을 빼아가는 가운데 소리를 없으면 풍성하게 같이 있는 소리가 난다. 이러한 복식호흡의 가장 좋은 훈련은 인사 잘하기에서 출발한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의 표현이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예절이고 예절중의 으뜸은 인사다.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인사는

또한 환영, 존경, 반가움, 예의 상황에 따라 각각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에 힘을 주고 들이마시는 호흡에 '안녕', 내뿜는 호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십니까'를 이어서 말한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존중을 나타내는 45도 정중례는 인사를 먼저 건넨 뒤 천천히 허리를 굽힌 뒤 1초가량 멈춘다 고개를 들어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정법이다. 취업 면접을 볼 때 인사만 잘 하더라도 평정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좋은 스피치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처음 발표할 때를 떠올려봐라. 발표 불만 때문에 남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렵거나 대중 앞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수를 겁내지 않아야 한다. 경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당당히 앞에 서야 한다. 반복은 두려움을 없애고 숙달과 경험을 낳는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실수를 인정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에는 보이는 언어(시각)와 들리는 언어(청각), 내용적인 언어가 있다. 이중 보이는 부분이 전달 내용의 55%를 차지한다. 음성 언어가 38%, 내용 언어는 고작 7%에 불과하다. 시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전달력은 떨어진다. 시각 언어는 시선, 표정, 자세, 용모, 복장이 이를 구성한다. 표정과 시선 처리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목소리 역시 중요하다. 목소리만 좋아도 예쁘고, 잘생겨 보인다. 심지어 성격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량, 음폭, 음질, 음색 등의 적당한 음성 연출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다 보면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되고, 이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절이고 예절 중의 으뜸은 인사다. 인사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SES 화법'과 '1·2·3 화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단순하게(Simple), 쉽게(Easy), 짧게(Short) 이야기해야 효과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치는 것도 좋은 스피치를 구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 신문 사설을 읽고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는다. 이것이 생활화되면 스피치는 문제가 안 된다. 천천히,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반대로 목소리가 작으면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잃은 듯한 인상을 준다. 강세와 강조만 잘 다룰 줄 알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스피치를 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완벽주의자가 아닌, 경험주의자가 돼서 꾸준한 연습 끝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자연과 나의 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김용택 시인

요즘 세상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한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공학과 인문학을 엮고, 기술과 예술을 어떻게 섞어내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를 위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실을 모르면 과거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교육이 없다. 공부는 하나를 알아서 열을 아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놀랍게도 정답을 알려주고 외우게 해서 정답을 쓰게 한다.

인생에서 취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예술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스무 살 때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예술 되면 쫓겨난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직장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라. 내 삶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잘 하게 된다. 좋아하는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밑바닥부터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내 나이 예순 다섯인데 주위를 둘러봐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삶이 행복한 인생은 아니다.

시는 결코 무겁지 않다. 즐겁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접하면 된다. 다만 아이들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처음 과제를 냈다. 집에 돌아가서 각각의 나무를 정하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다. 어느날 아이들이 선택한 나무에 대해서 있고 있을 때쯤, 이들에게 나

무에 대해서 묻는다. 아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선택한 나무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김없이 있고 있을 때쯤,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 어느새,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전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본 나무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한다. 그 이야기를 적어라. 아이들은 종이 위에 적는다. 그렇게 아이들의 시가 탄생된다.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심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관심을 가지면 인생은 바뀌는 것이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다. 남의 말이 옳으면 그 말을 듣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제히 되돌아 보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실천하면 훗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신문', '예술', '인간성'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리 집에서 3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지역신문과 가장 보수적인 신문,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다. 이 신문들을 읽는 나만의 방법도 있다. 신문의 제일 뒷면부터 사실과 칼럼을 보기 시작한다. 칼럼은 그날 하루 일어났던 복잡한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머리가 편하다. 한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두가지 시각으로 정리해놓은 사실을 읽으면 균형 감각이 생긴다. 중앙지 2개를 읽고 나면 지방신문을 통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된다. 우리 집은 신문이 현실 교과서다. 현실을 모르면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것이다. 시 한편과 함께 인터뷰 기사, 칼럼 등을 아들과 딸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아들과 딸이 중학교 다닐 때 보내기



“대학생이 신문을 안 읽고 생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신문은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공부 중의 하나다”

시작했다. 신문을 10년 봤으니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 그것이 힘이 된다. 대학생이 신문 한 부를 안 읽고 하루를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신문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공부 중의 하나다.

끝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성'이다. 구글과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 구글은 1년 내 인터뷰를 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우리나라도 학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필기를 보고 뽑는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인격이 얼마나 갖춰졌느냐. 입시경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체제와 지도방법은 학생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숙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공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늦고 더디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하는 일을 귀하고 행복하게 잘 가꾸면 된다.